

Robert Vannoy 박사, Kings, 강의 7

© 2012,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Solomon – 이집트로 돌아가 마음이 우상 숭배로 변함

F. 1. 결함이 있는 평화

2. 전환점 – 열왕기상 9:26-10:25 3. 이집트로 돌아가기 – 열왕기상 10:26-29

우리는 아직 "F" 상태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화평”(열왕기상 9:10~2)과 “전환점”(9:26-10:25)을 살펴보았습니다. "F" 아래의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집트로 돌아가라"라고 부를 것이다.

좋습니다. 다음 섹션은 10장 26-29절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모았으니”라고 읽습니다. 그에게는 병거 1,400대와 말 12,000마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병거 성들에 두었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산기슭의 뽕나무 같이 많이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은 이집트와 쿠에(Kue)에서 수입되었으며, 왕의 상인들은 그것을 쿠에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을, 말 한 마리에 은 150세겔을 수입하고, 헛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왕들에게도 수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솔로몬이 병거와 말 무역의 중개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말 한 마리당 150세겔에 말을 샀는데, 내 생각엔 여기서는

단순한 사업상의 합의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오늘날 국제 무기 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무기였습니다. 당시의 전차가 오늘날의 탱크였습니다. 그것들은 군사 도구였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여겨졌으나 그는 병거와 말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이 말을 많이 얻지 말며 말을 더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왕은 말을 많이 얻지 말며 말을 더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이 말 무역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그가 자신을 위해 말과 병거를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병거 1400대와 말 12,000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의 추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나라들은 상당한 수의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등한 말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애굽인들이 병거와 말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밀한

군사적 관점에서 무력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동안 많은 수의 병거와 말을 보유한 군대를 공격했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왕들의 연합이 있는데, 야빈이 모든 군대와 수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여호수아를 치러 나왔습니다. 해변의 모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병거와 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이 장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탈취한 것을 읽어보면 14절입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노략물과 가축과 모든 백성을 칼로 멸하여 완전히 진멸하였느니라.”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장의 문맥에서 주님께서 그 기회에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지시를 주셨습니다.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리라. 너는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려야 한다.”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병거와 말들을 취하여 그들 자신의 군대에 통합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인간의 기준으로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약함 속의 강함

내 생각에는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군대와 그들 자신의 힘과

위력보다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위의 모든 민족의 군대와 동등한 군대를 건설하고 군대를 만든다면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여호와보다는 군사력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점은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시설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비해 약해져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같은 원칙을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점은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원, 즉 무엇이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숨겨지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많은 형태와 변형을 취합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통 무력하고 약한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시며 강하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맥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에 남아 있어야 했고, 그들이 순종하고 신실한 한 주님은 그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과 병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명령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병거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가나안 사람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3절을 보면 “그는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병만으로 병거 900대를 보유한 시스라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7절에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하여 네 손에 붙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읽어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그 분 주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따라 다볼 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락이 다가오자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로 패하게 하시고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하니라.
그러나 바락은 병거들과 군대를 하로셋학고임까지 추격하였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 왕권이 확립되면 사울이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은 말과 병거를 만났습니다. 사무엘하 8:3, 4에서 다윗은 소바
왕 르훔의 아들 하닷에셀이 자신의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갔을 때 싸웠습니다. 다윗은 병거 천 대, 마병 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병거의 말 백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뒷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에 비할 만한 대항력이 없었지만, 그는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거들과 말들을 대부분 멸절시켰습니다. 그는 그들 중 백명을 구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본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20편에서 백성들은 왕에게 말을 걸고 승리를 위한 왕의
기도에 자신들의 기도를 더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 왕이 말하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이름을 의지하노라. 그들은 완전히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 중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리의 힘줄을 끊었고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병거들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의 수를 늘리는 것에 관한 왕의 신명기의 율법과 충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힘은 주변 국가의 힘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은 병거 1,400대와 말 12,000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대에 대해 알려진 주변 국가와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에게 이 원칙이 더 이상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데, 그 원칙은 내가 충분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왕의 특징 중 하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언약의 왕이 가져야 할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대부분 그를 따르는 모든 왕들에게 계속되는 패턴을 여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을 보면 이사야는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말이 가득하다. 그들의 병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낮아지고 인류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도 이사야가 언급한 은과 금, 말과 병거, 우상 등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율법에 반영되어 있는 바로 그 일들인데, 이스라엘이 멀리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를 늘리고 강력한 군대를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G. 결론 – 열왕기상 11장

1.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배반: 마음이 돌이켜짐

좋아요, "결론"인 "G"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11장이예요. 거기 시트에 두 개의 하위 항목이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배반입니다. 솔로몬이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율법에 있는 두 가지 금지 사항, 즉 말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는 것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보면, 11장에 이르면 그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셋째도 범하였으니 아내를 많이 두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 등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좇게 될 것임이니라 하신 여러 나라 사람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사랑으로 그들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에게는 귀족 부인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를 그릇되게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큰 하렘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의 왕권이 다른 고대 근동 궁정의 패턴과 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대부분 타국 여자들이었던 것 같으며, 아마도 그들 중 상당수가 정치적 동맹과 관련하여 솔로몬의 하렘으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여러 민족 출신이니라.”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여 굳게 잡았으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합의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그에게는 왕후가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를 유혹하였더라. 솔로몬이 늙으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3절 끝부분에 있는 “그의 아내들이 그를 그릇되게 하였느니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느니라”입니다. NIV 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뉴킹제임스 성경은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구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 즉 핵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 인생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면 삶이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마음을 빛나가게 하면 그것은 삶에도 반영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엔 솔로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실패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이 아내들이 그의 생각과 속사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그는 그들의 이교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신 몰렉을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그는 이방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쳤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읽지 않지만, 내 생각에 그가 한 일은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동쪽 성전 근처에서 이방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합법적인 장소를 주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있는 이방인의 제단을 모두 파괴해야 한다는 언약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파괴하는 대신에 그분은 건설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시점 에서 당신은 솔로몬의 삶에 그의 초기 시절보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두 번 나타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

4절은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 용어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니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샬렘입니다*. 이는 “샬롬”과 같은 어근이고 솔로몬의 이름과 같은 어근입니다. 기본 어근은 샬렘 (*shalem*) 이다. 글썄, 일부러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건전하다, 조화롭다는 뜻인 것 같아요. 다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솔로몬 왕국 초기에 그의 왕국은 다툼이 없고, 온전하고, 건전하고, 온전하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근과 관련된 솔로몬의 이름은 온전함과 분쟁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그의 사명, 즉 임무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건전한 상태, 평화의 왕국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건전하지 않습니다. *샬렘*;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화평과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분열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스스로 작용하여 왕국에도 분열과 불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 열왕기상 9:4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과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9장에서 그 구절을 볼 수 있음)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참고 9:4: “네가 만일 마음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내 앞에서 충실히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길을 잃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을 것이다.” 등등. 그는 그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돌아가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의 태도가 이러하고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찢으리라” 네게서 그것을 네 신하 중 하나에게 주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언약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언약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후에 그의 마음은 타락하여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솔로몬의 대적 – 열왕기상 11:14-25 이 결론에 따라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대적, 14절부터 25절, 11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솔로몬에 대한 주님의 분노에 대한 신호를 보게 되는데, 그 신호는 이 대적들의 활동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왕계에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니”.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읽는데, 다윗 시대에 그는 에돔에서 도망하여 이집트로 피신하여 실제로 이집트 파라오의 가문과 결혼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집트에서 에돔으로 돌아왔고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노여움의 표시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자는 바로 그 대적이었더라.

둘째 사람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대적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니 곧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요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을 장악했고, 25절에 보면 르손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다마스쿠스는 물론 북쪽에 있습니다. 에돔은 일종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들이 있었습니다. 르손이 있던 다메섹은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의 적으로 남아 있었고, 늘 투쟁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도 그게 남아있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솔로몬 시대에 두 명의 반대자들이 부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솔로몬이 우상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자신의 백성을 상대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 일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을 사용합니다.

메시아적 이상 왕의 등장 좋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만 두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솔로몬 왕국이 열왕기의 모든 추종자들을 위한 무대를 실제로 마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솔로몬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언약적 왕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의 왕국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더욱 분명해지고 심각해질

것이며, 신명기의 언약의 심판이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러한 추세가 시작되면서, 특히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언약의 왕에 대한 메시아적 이상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인간적이고 지상적인 통치자들을 그다지 바라보지 않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왕국을 세우실 때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알았어, 여기서 그만하자. 다음 주에는 로마 II로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Katharine Adamyk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